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

성경: 잠 1:1-7, 엡 4:22-24, 6:17-18

- I.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이다(1:1-7). 이 책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며(비교 대하 1:10-12, 골 2:2-3, 1:28-29), 사람이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비교 빌 1:20, 갈 6:7-8, 5:22-26).
- A. 잠언들이 주로 율법 시대에 두 왕(솔로몬과 히스기야)에 의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책은 율법의 부칙으로 여겨질 수 있다.
 - B. 율법이 하나님의 묘사이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사관이 되어 그분의 표현과 영광이 될 것을 요구한다 — 비교 롬 8:4.
 - C. 율법의 부칙인 잠언은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존재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자신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 II. 잠언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고대의 많은 현인들이 남긴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잠언을 훌륭한 책으로 여긴다. 그러나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 책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 A. 우리가 강한 생각을 가진 윤리적인 사람이고 참되게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갈망한다면, 분명 이 책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도울 것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지는 못할 것이다 — 딤후 4:22, 롬 1:9, 2:29, 7:6, 8:4-6, 9-11, 16, 고전 16:18, 고후 2:13-14, 빌 3:3, 갈 5:15-17, 22-25, 6:18, 엡 5:18, 6:18.
 - 1. 구약에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에 만족하고 인간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을 대치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욥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했다.
 - 2.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곧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욥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극도로 얻는 것, 곧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 빌 3:7-8, 12, 사 43:7, 고전 6:20, 10:31, 비교 요 17:1.
 - 3.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인간의 온전함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욥이 성공적으로 인간의 온전함을 이룬 것은 하나님에 의해 허물어졌다. 그런 후 하나님은 욥에게 오시어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은 욥이 마땅히 추구하고 얻고 표현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분 자신임을 보여 준다 — 욥 42:1-6, 10:13, 엡 3:9, 빌 3:14, 고후 3:18, 4:16-18.

- B. 잠언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엡 6:18, 눅 18:1, 골 4:2). 이런 식으로 잠언을 대한다면, 우리는 새사람에 의해 말씀을 접촉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서 살고 계시는 주 예수님에 의해 살 것이다(딤후 4:22, 요 6:57, 63, 렘 15:16).
- C. 우리는 자기 계발을 거절하고 옛 창조물에 속한 타고난 사람을 함양하는 것을 유죄판결 하며(비교 마 16:24, 롬 6:6, 갈 2:20), 그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의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새 창조물에 속한 거듭난 사람으로서(엡 4:22-24, 고후 4:16) 잠언을 대해야 한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것이다(요 6:63, 마 4:4, 엡 6:17-18).
- D. 신약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잠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일부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시편 작가는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해 제 손을 들고”(119:48)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느 8:5-6).
- E.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숨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절이든지 온갖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는 것이 된다 — 딤후 3:16, 엡 6:17-18.
 1. 잠언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쉬신 숨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다.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한다. 잠언 안에 있는 신성한 숨을 들이쉬므로써,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을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 딤후 3:16, 요 20:22.
 2. 이스라엘 자손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분을 얻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두르고, 그리스도를 써 붙여야 한다 — 신 6:1, 5-9, 빌 3:9, 1:19-21상.
 3.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 곧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딤후 3:16), 우리는 잠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기도로 받아들임으로써(엡 6:17-18) 성경을 들이쉬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 내쉬어야 한다.
- F.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엡 5:18-19, 3:19) 잠언을 읽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약의 생명의 영 안에서(롬 8:2),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여(16절) 말씀이 영과 생명(비교 요 6:63)과 섞이도록 기도와 읽는 것(엡 6:17-18)을 섞어 가며 잠언을 읽어야 한다.

III.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금덩이 같은 큰 잠언들과 보석 같은 작은 잠언들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새사람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A. 우리는 우리의 새사람을 건축하고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 있고 효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 히 4:12.
 1. 원수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혼합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갈수록, 우리는 능력보다 순수성을 더욱 귀하게 여길 것이다 — 마 5:8, 눅 11:34-36, 시 119:105, 130.

2. 그러한 혼합을 제거하는 길은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나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낼 때, 혼과 영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 — 시 36:9, 뱀전 2:9.
 3.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아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든 빛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빛에서 오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빛이 비춤 결과로 혼과 영이 분리된다 — 사 6:1-8, 행 9:1-4, 13:9-10.
 4.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가장 깊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여 주시는 순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누어지고 분리될 것이다.
 5. 말씀을 기도로 읽지 않는다면, 잠언은 단지 여러 잠언들을 모아 놓은 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도하며 잠언을 읽을 때, 즉 잠언을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모든 잠언들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된다.
- B.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잠언을 대해야 한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시 27:8, 105:4, 119:2, 10, 58, 135, 168, 고후 3:6.

IV.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에게 두 사람, 곧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준다.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하고 우리의 타고난 출생을 통해 존재하며, 새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에 의해 존재한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잠언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을 계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A.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잠언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 창조물을 따라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갈 6:15). 옛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엡 4:22), 곧 출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없다.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엡 4:24), 곧 그 영으로 거듭난(요 3:6) 우리의 존재이다.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그 안으로 일해 넣어져(요 3:36, 뱀후 1:4), 그리스도가 조성 성분이 되어(골 3:10-11) 새로운 조성체가 된 것이다.
- B. 우리의 영 안에는 뛰어나시고, 놀라우시고,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일곱 배로 강화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계신다(빌 1:19, 계 4:5, 5:6. 고전 15:45, 고후 3:6, 롬 8:16).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요 10:35)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1:1, 5:39-40)를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 곧 그 영이 되신다(엡 6:17-18).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어느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요 6:63).
- C. 우리는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받음으로써, 성경을 겉보기에 자아를 계발하고 타고난 사람을 건축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 책에서, 실지로 빛과 생명과 영과 영적 자양분이 충만한 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책이 될 때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파쇄하며,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공급해 줄 것이다.

V.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온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비교 빌 3:3-14), 성경 전체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도의 영으로 읽어 문자적인 교리가 아닌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비교 요 5:39-40, 고후 3:6). 우리는 자기 계발을 위한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양하기 위해 잠언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인 신성한 미덕들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갈 5:22-23, 마 5:5-9).